

2022. 12. 16.(금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2년 12월 16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보건환경연구원 질병연구부

질병연구부장	이 집 호	570-3220	
바이러스검사팀장	김 은 정	570-3425	
담 당 자	윤 용 태	570-3426	
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	감염병관리과장	송 은 철	2133-7660
	감염병관리팀장	이 승 찬	2133-7686
	담 당 자	강 수 경	2133-9635

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: 2쪽

겨울에 떠나는 해외여행... 뎅기열 조심

-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이후 해외여행 증가로 국내유입 뎅기열 환자 증가
- 뎅기열 유행지역 여행시 주의 및 의심증상 있을 경우 신속한 병원 진료 당부

-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지역 소재 병원을 내원한 뎅기열 의심환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뎅기열 환자는 34명이었다고 밝혔다.
 - 현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고 있는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 병은 뎅기열, 황열, 치쿤구니아열, 웨스트나일열,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등 5종이 있다.
- 작년에는 뎅기열 환자가 확인되지 않았으나,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로 해외여행객이 늘어나면서 올해는 뎅기열 환자수가 증가하고 있다.
 - 뎅기열 추정 감염 국가는 베트남이 가장 많았고 태국, 인도네시아, 필

리핀, 싱가포르, 인도 등이 있다.

- **덴기열은 덴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숲모기에 물려 전파되며, 3~14일(일반적으로 4~7일)의 잠복기를 거쳐 두통, 근골격계 통증, 발진을 동반하는 급성 열성질환으로 연령에 따라 질병의 중증도 및 임상 양상이 다를 수 있다.**
 - 임상경과는 발열기, 급성기, 회복기로 진행되며 발열기는 일반적으로 2~7일 정도 지속되고 두통, 근육통, 관절통 및 발진, 구강출혈 등 미약한 출혈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. 소아의 경우 탈수로 인하여 의식저하나 열성경련이 일어날 수 있다.
 - 급성기는 해열 이후부터 1~2일 정도 지속하며 4일까지도 진행되고 대부분 환자는 이 시기에 회복되지만 심각한 혈장 유출이 있는 환자의 경우 중증 덴기감염증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발병초기에 지체없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.

- 또한, 덴기열은 예방백신이 없으므로 동남아 등 해외여행을 갈 경우 출발 전 여행지역이 덴기열 유행지역인지 확인하고 여행 중에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
-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“동남아 등 덴기열 유행지역으로 해외여행후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해외방문력을 알리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”라면서 “앞으로도 해외에서 유입되는 덴기열 등 의심환자에 대한 신속한 검사를 통해 시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